

雑誌『国民文学』研究：〈理想〉の文学への道

メタデータ	言語: ja 出版者: 静岡大学人文社会科学部 公開日: 2016-02-16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南, 富鎮, 松下, 玲音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4945/00009309

The Study of “Kokumin Bungaku” ; The Path to “Ideal” Literature
(『국민문학』의 연구—〈이상〉을 향한 문학에의 길)

NAM Bujin, MATSUSHITA Reon

『국민문학』은 1941년11월부터1945년5월까지 식민지조선에서 간행된 문예종합잡지이다.국책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 잡지는 그 성격상 친일문학잡지로 분류되어 친일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문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이 무시되어 왔다.

그 중요한 성격의 하나가〈이상〉의 문학을 향한 정열이었다. 문학의〈이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행하여 졌다. 그러나〈이상〉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이상〉을 향한 노력이 요구되는 과도기이라는 인식이 유일하게 공유될 뿐이다.〈이상〉을 향한 과도기의 문학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문학이며, 이러한 영원히 달성되지 않는 과도기의 설정이 국민문학의 중요한 정치적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노력과 반성을 통한 지배적 구조가 국민문학인 것이다.